

‘이상과 현실사이’ 시장한계 실감한 소변분석자판기



이 제품은 꼭 키오스크처럼 생겼죠? 무엇에 쓰는 제품인지 궁금하지 않나요. 이 제품은 놀랍게도 소변 분석을 통해 건강검진을 하는 자판기입니다. 지난 2004년 상품화되어 시장개척이 진행되었으나 아쉽게도 빛을 보지 못한 아이템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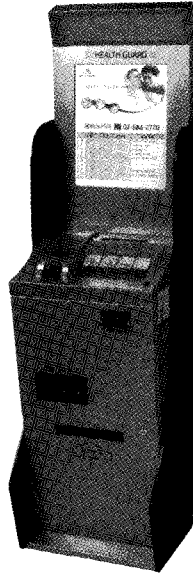
당시 (주)J&S글로벌이 개발한 ‘헬스가드’라고 명명된 소변검사자판기는 기존 병원에서 가능했던 소변분석을 단 1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품이었습니다.

요는 혈액이 전신의 조직을 순환하면서 운반된 노폐물과 여분의 수분이 신장에서 여과되어 체외로 배출되는 것이라 합니다. 신장을 비롯하여 요가 배설되는 곳까지 어디엔가 이상이 있으면 노폐물이 배설되지 않는다는지, 배설되어서는 안 되는 물질이 요에 섞이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의 이상을 검사하기 위하여 요중성분이나 성질을 검사하는 것이 요검사입니다.

소변분석자판기를 통해서서는 이같은 요의 특성을 분석해 신장염과 당뇨, 간질환, 요로 감염 등 약 19가지에 이르는 질환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소변을 자판기에서 검사하게

만들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자판기를 통한 소변분석은 체노스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체노스틱은 캡슐을 통해 진공 포장되어 판매가 됩니다. 제품 이용자가 일정 금액을 투입하면 체노스틱이 배출이 되는데, 포장을 뜯어 스틱에 소변을 적당량 묻힌 후 휴지로 가볍게 닦아내야 합니다. 주변에 당연히 화장실이 있어야겠지요.



체노가 완료된 스틱을 투입구에 넣으면 자동으로 검사를 끝낸 후, 검사표와 분석표를 비교하여 건강상태를 점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제품이 개발되게 된 동기는 어떻게 하면 보다 쉽고 간편하게 당뇨검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였다고 합니다. 그 방법을 모색하던 중 가정용 소변분석기가 출시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시스템을 자판기로 응용 접목해서 제품 개발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일단 아이디어도 좋고 국민건강에도 공헌하고 괜찮은 아이터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제품의 야심찬 도전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기대만큼 시장창출이 이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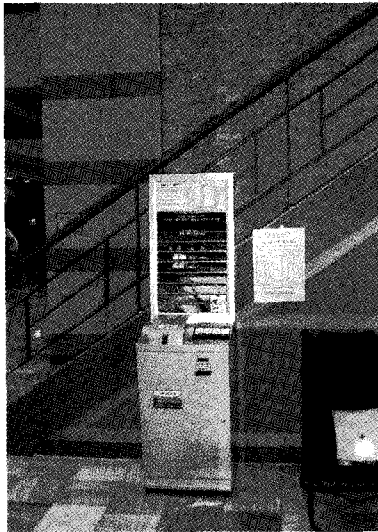
어지지 못했고, '건강진단은 병원에서 하는 것'이라는 소비자의 높은 인식의 벽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제품의 상용가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하느냐하는 문제가 생각보다 쉽게 해결되지 못했던 것

소변분석 자판기 같은 건강진단 자판기는 기존 의료기관 및 단체 등과 공동연계해 보급이 추진되지 않고서는 성공하기 힘든 아이템입니다

입니다. 또 하나 소변을 채취해 검사를 자판기에 맡긴다는 게 영 번거롭게 느껴지고, 내키지 않는다는 소비자 심리도 한몫을 했죠. 건강진단 행위가 병원이나 또 가정 (*가정용 의료기를 통해)을 벗어나 불특정 다수가 모인 대중 로케이션에서 행해진다는 것을 꺼림직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이런 점들 때문에 이 자판기가 대중적인 수요확대를 하기가 상당히 힘들었던 것입니다. 간편하게 건강진단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제품의 기

능은 좋았지만, 건강진단에 대한 기존 소비자의 높은 인식의 벽을 뛰어 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입니다. 또 한가지 집고 넘어가기 않을 수 없는 측면은 기존 병원들이 이 제품의 신뢰성을 인정해 주느냐하는 문제입니다. 이 제품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의료행위가 아니라 건강분석의 1차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2차 의료기관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높다높은 기득권을 가진 의료기관에서 이 제품을 자신들의 의료행위에 도움을 주는 보조기기로 인정을 할까요? 거의 가능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의료기관 입장에서 건강검진이 아무 곳에서나 할 정도도 대중화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다면 병원을 찾게 만드는 게 의료기관에 도움이 되지, 병원이 외에서 자의적으로 검진을 해 문제가 있을 때만 병



원을 찾는 시스템은 병원 수익성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아이템은 의료기관의 환영을 받기는 힘듭니다. 결국 의료기관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은 소변분석자판기가 가지는 취약점으로 작용합니다. 의료기관의 무시를 당한다는 점은 제품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이용자 확대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 자판기의 검진 결과에 대해 소비자들이 신뢰성을 갖게 하느냐 문제는 의료기관의 협조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1차적인 검진을 자판기를 통해서 하고, 의료기관에서 확진 및 치료를 하는 유기적인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소변분석자판기가 그저 '원톱'으로 험난한 그라운드를 헤쳐 나가는 역부족입니다.

소변분석 자판기 같은 건강진단 자판기는 기존 의료기관 및 단체 등과 공동연계해 보급이 추진되지 않고서는 성공하기 힘든 아이템입니다. 제품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공공성과 신뢰성을 어떻게 확보할지를 생각해 보면 자명해 집니다. 그저 아이디어가 좋고 시장성이 괜찮아 보인다는 이유로 선불리 달려들 분야가 아니라는 얘기죠. 건강진단자판기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라면 반드시 유념해야 할 사항입니다.